



◇1만평 대지에 건평 2천8백평 규모의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기공식이 지난달 25일 नेपाल 룸비니현에서 열렸다.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기공 "네팔 룸비니 동산에 한국사찰 위용" 화엄사 각황전 본뜬 2천8백평 규모

네팔 룸비니동산 한국절 대성석가사(주지 법신) 대웅보전 기공식이 지난달 25일 도문스님(대각사 주지) L.D.T 네팔사원 주지등 1백여명의 한국신도와 2천여명의 네팔 현지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03년 준공예정인 대성석가사 대웅보전은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만평 대지에 건평 2,800평이다. 또 식당과 회의실로 사용하는 2층 현대식 건물위에 국보 제 67호인 화엄사 각황전 모습을 본뜬 법당과 장엄각을 올린 모양으로 건립됐다. 한편 법당앞에는 불교사의 석가탑과 다보탑모형의 석탑을 건립하여 한국사찰의 위용을 자랑한다.

룸비니개발위원회로부터 국제사원구내의 부지 1만평을 장기임대할 대성석가사는 95년 12월 기공한 제1요사채를 최근 완공했으며, 그동안 룸비니 성지를 찾은 한국인 3천여명과 외국인 3만여

BBS 경리사고 종회 조사특위 구성될 듯

사건 발생 2달을 넘기고 있는 불교방송 경리사고가 부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회차원의 불교방송 조사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불교방송 공금회계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여연)'는 지난 11, 12일 이틀간 불교방송 관계자 면담과 회계재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달아난 피의자 김선도씨와 불교방송 재단사무국 송병욱국장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2건이 발견됐다.

그러나 조사위가 본격 조사를 위해 방송국에 요청한 삼일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세무보고서, 장비구입관련 거래처 리스트 등의 자료가 불교방송 경리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위원장 여연스님은 "사건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은행통장 등 관련자료

장뇌산삼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參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參을 통해 山參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 '봉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자비의 손길에 감사"

BBS '거룩한 만남' 3백회 축하법회 27일 호암아트홀

불교방송을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은 '거룩한 만남' 3백회 특집 축하행사 및 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91년 4월 5일 제1회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방송돼 온 거룩한 만남은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보살의 마음으로 진행돼 왔다. "거룩한 만남은 눈물과 진한 감동이 있다"는 것이 청취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중생의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로 감싼다는 취지로 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0여억원에 이른다. 거룩한 만남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는 방송이후 밀려드는 온정의 손길로 총 1억여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등 거룩한 만남은 불자들에게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거룩한 만남 1회때부터 3백회까지 한 회도 빠짐없이 성금, 의류, 의약품, 식료품 등을 기탁한 우정스님과 장흥 밀을 저금통삼아 던져넣은 동전을 연말에 선뜻 성금으로 내놓은 이경철씨 등의 사연도 들을 수 있다.

우정스님(명덕사 주지)은 "수행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한국불교 제주 광명사 알림도량

중문 관광단지에 20억 예산 목조법당·선방 등 올말 완공

스님과 불자들이 제주도에 가면 사찰에서 수행활동을 하며 관광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광명사(주지 진주)는 사찰인근 5백m 이내가 관광공원용지로 고시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한 대작불사에 착수했다. 광명사가 위치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 특급호텔과 해양수족관, 동양현대 식물원,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대형쇼핑센터 등을 유지하여 국제적인 종합휴양단지로 조성중인 신중문관광단이다. 그런만큼 관광객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사는 현재 20억 예산으로 올말 완공예정인 법당과 선방 조경사업을 진행중이다. 또 지하 1층 지상 3층 1백평규모의 불교홍보교육관을 올말 착공하여 불교문화 불교용품 전시, 내·외관광객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한국고유 전통건축양식을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명사는 팔각지붕을 기본으로한 전통건축양식의 목조법당(40평) 불교홍보교육관(1백평) 선방(40평) 사천왕문 조각 승방 대웅방 해수관음상 탐입 석등 조성, 사찰조경사업등을 펼치고 있다. 또 불사가 완료되는데로 전면개방되는 광명사는 종단을 초월해 제주도를 찾는 스님과 불자들이 사찰에 기거하면서 관광과 수행을 결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추진중이다.

주지 진주스님은 "광명사가 중문숙박시설단지 선별고 천제연폭포 중문해수욕장을 하나의 코스로 잇고 있어 내·외관광객들의 참배가 날로 늘고 있다"며 "이들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포교도량으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사는 1차 사찰조성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유치원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하여 후세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BBS노조 "재단이사회 불신임 검토"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선상신)는 지난 10일과 12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두 번에 걸친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종회가 진상조사를 나올 정도로 이번 사건을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등 강력한 대응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진 책임물어야" BBS직원 98%

불교방송 노동조합이 지난 4일~6일까지 불교방송 종사자(노조원, 비노조원 포함)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이번 경리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7.1%가 상무를 포함한 사장과 재단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대담자의 84.6%가 최근 3년간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숭고함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일 주제를 갖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론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오는 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3월 테마여행-내소사

한국의 색·線·面 (부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내소사는 변산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고찰로 연꽃 국화 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꽃무늬문살로 유명한 대웅보전(보물 제291호)과 고려시대 동종(보물 제277호) 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들을 서로 교합하여 건축한 대웅전은 조선 후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천장의 꽃무늬와 뒤벽의 백의관음보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끄니다. 또한 일주문에서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쪽쪽 뿔은 전나무길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나무터널로 속진을 쫓아줍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채석강도 들릴 예정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호남명찰로의 테마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참가 안내

◇출발 3월 23일(일) 오전 7시·조계사 앞

◇안내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회비 3만원(사찰에서 점심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조흥은행 계좌 322-04-221460(성경회)

4월 27일 석굴암 남산-한국의인 얼굴
5월 25일 대흥사-禪茶 그리고 한국의인 풍류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목탄소

김재경 (취재 1부 기자)

"군법대에 오는 신병들은 초코파이를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그나마도 나눠주기 힘든 실정이지요."

15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신병교육대 군법당을 돌며 군포교에 심혈을 쏟고 있는 송준회 법사(59·백련장학회장)는 군법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신병들을 교화나 상담에 썼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군법대에 갈 때마다 절편과 시루떡을 해가며 송법사는 "각부대 군법대에 매달 10만원씩만 지원이 돼도 사병들에게 부족하나마 간식을 나눠줄 수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한다.

지난 10일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5만여 장병불자에게 '부처님오신날 위문품'을 보내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모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력기사 15면)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라는 난제가 남아있어 군포교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개신교 군복음회가 올해 활동예산의 10%인 55억원을, 가톨릭 군정교구청이 지난해보다 30% 인상된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 1억원의 예산은 '재발의 피'라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조계종포교원은 군순단에 4억4천여만원을 지원하지만 군불교진흥회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 대부분의 예산은 군법당 건립에 소모되는 실정이다.

반면 기독교계는 군이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인식이라 "21세기를 향한 선교의 교두보, 軍을 공략하라" "복음전선 사수하라" "교회여! 지원사격 개시하라" 등의 구호 아래 조직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교회는 가시적인 포교성과 나 타나는 불사에만 그달려 눈 에 띄지 않는 군포교를 버린 자식 보듯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나마 있는 군포자마저 개종될 판이다.

포교의 황금어장에 계속 풀어진 그물망을 던질 것인가, 전병의 해를 맞은 종단은 다시 한 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부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사

■크기/90cm×6m ■가격/40,000원

부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 ○ 사

■크기/90cm×8m ■가격/50,000원

부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 ○ 사

■크기/90cm×10m ■가격/6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 수동식 100개 25,000원
기계식 100개 4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1장 : 2,500원)
100장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 (02)738-8682

봉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선문빈

장뇌산삼

부모님께 효도 선물!
뜻깊은 분께 감사의 선물!

삼보귀의 하우고
대덕스님, 스승님, 부모님, 운동선수 및 견비통, 산후조리,
아픈 불자들에게 최상품 산삼을 최적의 가격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겠습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參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參을 통해 山參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 '봉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량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부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채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